

2010년도 국정감사 쟁점사항과 진실

편집부

〈계열화사업 개요〉

- 가축계열화란 가축의 사육이나 가축·사료 등 자재공급, 도축·가공 및 유통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
 -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병아리 등 생산자재 공급 및 사육경비 지급 등에 대해 사유계약서 체결
 - 2009년도 기준 시·도에 지정된 육계 계열화사업자는 32개사
 - 민간기업 20개사, 생산자단체 1개소,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11개소
- ※ 계열화사업자 처리 물량은 도계물량(680백만수)의 85% 수준

1. 생산성 관련

가. (질문) 생산성이 올라가면 농가는 손해라는데 무슨 의미인가?

나. (양계협회) 생산성이 높으면 농가는 손해, 사료요구율, 1,320원, 1,230원 정산서 사례 제시

○ 하림이 농가에게 제출한 사육정산서에 나타난 각 항목별 매입 단가가 줄어듦.

다. 하림 답변

○ 양계협회가 이의 제기한 2009년 6월 11일자(생산성 좋은 사례)와 7월 18일자(생산성 저조 사례)의 농가의 사육비 정산서를 비교하면, 평균중량 1.525kg 기준하

〈표 1〉 중량별 기준표(육계)

(단위 : 원)

구분	기준중량	평균체중	사료요구율	약품비	사료원가	병아리원가	수수료	생계매입단가
1)	1.50~1.549	1.525	1.791	34	907	239	140	1,320
2)	1.50~1.549	1.525	1.624	34	820	236	140	1,230
증감	-	-	-0.167		-87	-3	-	90

※ 1) 기준일 2009. 7. 18, 육성을 96.03%, 사료요구율 1.731, 평균중량 1.449, 사료비율(8.4%, 40.7, 50.9)

※ 2) 기준일 2009. 6. 11, 육성을 97.31%, 사료요구율 1.684, 평균중량 1.601, 사료비율(7.5%, 38.5, 54.0)

여 FCR이 1.624인 농가(A)가 FCR 1.791인 농가(B)보다 생계 매입단가는 90원/kg 낮으나 A농가가 수령하는 사육비는 사료비에서 B농가보다 5,581천원 절감되었고, 계절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료비에서 1,020천원, 생산지수 성과급에서 452천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종합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A농가의 사육비가 18,305천원으로 성적이 낮은 B농가 16,609천원보다 1,696천원(수당 35원) 높음.

- 즉, FCR이 향상되면 생계 매입단가가 낮아져 총 생계 매입금액은 줄어들지만 사료 사용량 감소에 의한 사료비 절감분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인센티브에 의하여 성적이 우수한 농가의 사육비가 증가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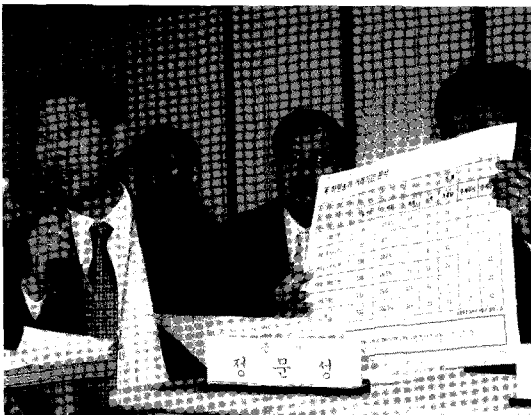
2. 농가에 대출 관련

가. (김학용 의원) 하림에서 농가에 대출시 7.5%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나. (양계협회) '육계농장 자동화 사육시설 공사 계약조건'에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7.5%의 이자를 적용

다. (하림 답변)

- 하림이 정부로부터 용자받은 정책자금은 모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계열농가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가축 계열화사업 자금의 경우 회사는 단지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이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자금 용자는 해당농



2010년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하림 김홍국 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0년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하림 정문성 전무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가 지정하는 농, 축협을 통하여 직접 농가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계사 신축농가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책 자금이 공사비의 50% 선에 불과하여(농협의 담보대출비율이 감정가의 40% 내외) 부족한 공사비를 회사 측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회사는 부족한 시설개선자금을 신용 대출에 준하는 조건(해당 신축 농장 2순위 담보/신용 대출)으로 7.5% 이자로 선급금 지원하고 있음.
- 이밖에 생활비, 육성 연료비 등 원자재에 대한 선급금은 0% 금리 적용하고 있음.

3. 하림의 수입 닭 사용 관련

가. (신성범 의원) 양계업계는 하림의 수직 계열화에 대해 걱정, 농가들의 불만이 많으며 하림이 수입 닭을 사용한다는 데 사실인가?

나. (하림) 수입 닭은 매출액의 1% 사용

- 수입육업체는 수입육을 매출의 대부분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하림은 수입육을 일부 제품 구색 확보를 위해 대형 외식업체등에서 수입육 원료 요구 품목에 한하여 사용함(원료 규격이 국내 조달이 어려운 품목으로 수입 원료를 이용한 2차 가공 판매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 직 수입이 예상됨).

〈표 2〉 하림 수입 닭 사용량

구분	원료명	2007년	2008년	2009년	용도
전국 수입량	닭날개외	37,810	62,141	58,465	
하림 사용량	닭날개외	1,099	1,946	1,547	윙봉후라이드 (롯데리아, KFC, 실수요) 롯데리아 그릴패티
	수입 원료 사용 비율(%)	0.8%	1.4%	1.0%	
	생산량 (신선육, 가공)	141,954	141,650	154,542	

4. 농가 사육수수료 관련

가. (강석호의원) 농가에 지급되는 사육비는 얼마나 인상되었는가?

나. 증인답변

- (양계협회) 2004년도 사육수수료가 인화된 이후 사육수수료는 제자리

○ (하림)

- 1999년 대비 2010년 하림 육계농가 평균 조수익이 47백만원에서 106백만원으로 59백만원(125%) 증가.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35%, 사육규모 확대 57% 감안하더라도 평균 조수익이 33% 추가 상승했음. 사육경비를 제외한 농가 순수익에서도 같은 기간 38백만원(125%) 상승함. 수당 사육비 역시 1999년 317원에서 2010년 6월

〈표 3〉 2003년도 이후 사육수수료(양계협회)

기준 총량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25 ~ 1.299	130	125	125	125	125	125	125
1.40 ~ 1.449	135	130	130	130	130	130	130
1.45 ~ 1.499	140	135	135	135	135	135	135
1.50 ~ 1.549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55 ~ 1.599	140	135	135	135	135	135	135
1.60 ~ 1.649	135	130	130	130	130	130	130
1.75 ~ 1.799	130	125	125	125	125	125	125

〈표 4〉 농가 수익표(하림)

항목	조정년도	인상금액/kg	인하금액/kg	산출근거
연금적립금	2001-11-01	10.0		상대평가 이후 개선금액 농가보전
시세보너스지급 신설	2002-09-01	7.8		2004.01.01~2010.10.20까지 (7,289,884,240원/931,146,784kg)
중량적중률 패널티 강화 수수료(매입단가) 인하	2003-06-01		0.6	업계불황(많은 회사 부도) 적자누적 및 당사 대 회계 위기 극복
물류비 적용	2003-12-01		5.0	
조기출하 보조금지급 인상	2003-12-01		8.3	
조기출하 보조금지급 인상	2004-10-03	4.3		20원~110원(1,499~1kg) 대화재 인허부분 환원
하림농가협의회 정식 출범	2005-05-01			상생을 위한 대화창구 구성
물류비 52% 축소	2005-01-01	4.3		대화재 이후 적용부분 환원
물류비 100% 축소	2005-03-01	4.0		농가협의회 의견 즉시 수렴
변상금제로 및 최소사육비 지급	2007-10-01	4.19		2009. 01. 01~12. 31까지 정산농가 (583,825,607원 / 139,308,367kg)
자연실록 사육농가 인센티브	2008-08-01	4.4		2010. 01. 01~2010. 10. 11까지 (535,715,580원 / 121,680,944kg)
연료비 인상	2008-09-01	5.3		평균 8% 인상 및 테이블 상향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계약서)	2009-05-01			1) 을의 의무조항 12항 삭제 2) 변상농가 사고 보상기준 완화 3) 연금적립금 지급기준 완화 4) 계약임의해지조항 수정 5) 분쟁시 관할법원 수정 6) 담보 및 연대보증인 조항 일부 수정
VQIS 시행(육계)	2009-05-01	10.0		품질개선비 지급(농가협의회 의견 수렴)
대담 보조금 신설	2010-04-01	6.0		대담사육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성수기 입추보너스 지급	2010-04-01	4.74		5월~8월(수당 20원~50원) 인센티브 지급 (578,617,000원/121,680,944kg)
계		65.1	13.9	상차비 및 상차보조비 인상은 본자료에서 제외
상대평가 이후 사육비 증가액(원/kg)		51.2		

421원으로 104원(33%) 증가했음.

- 다만 2003년 업계 불황 및 하림 도계장 화재로 회사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전체농가의 동의를 얻어 원거리 농가 물류비 분담, 일부 사육비 인하 조치가 있었으나 1, 2년 뒤 대부분 원상회복되었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계약서 개선에 의한 사육비 인상액이 kg당 51원에 달하고 있음.

5. 상대평가 관련

가. (김성수 의원)

- 11년간 상대평가를 하면서 순이익이 회사와 농가 중 어디가 높은지.
- 인센티브 농가가 많은지 페널티 농가가 많은지
- 인센티브 농가가 많다는데 사실인가
- 공급되는 사료와 병아리는 균일한가
- 마니커 등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절대평가 시에 수익이 낮다고 생각함.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

나. (양계협회)

- 상위 10%, 하위 10%를 제외, 생산지수, 육성률 등 설명
- 상대평가가 불공정하여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9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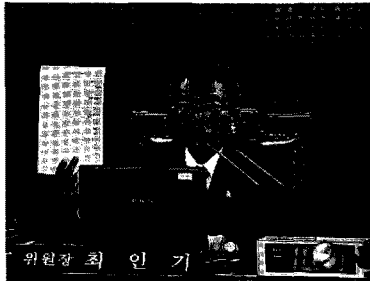
- (양계협회) 하림은 타 계열사와 달리 하림 및 그 방계회사는 상대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농가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마니커, 동우 등 타 계열회사의 절대평가 방식과 비교하여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형된 상대평가 제도를 운영
- (평균성적 산출의 문제점) 하림에서는 공정한 기준산출을 위하여 상·하위 10%를 육성률과 사료요구율을 제외한다고 했으나, 육계성적은 생산지수가 확실한 평가기준이 되므로 상·하위 10%를 생산지수로 결정되어야 함. 상·하위 10%의 육성률과 사료요구율은 성적산출 기준의 공정성이 없음.
- (소득결정의 문제점) 육계사육에서 소득의 약 80%는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에 의해 소득이 결정됨. 하림이 농가



2010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가 열렸다.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최인기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에게 공급되는 병아리의 품질과 사료의 품질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 차이에 대한 보정이 없이 상대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상대평가의 원칙상 동일한 사료와 병아리가 공급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유지가 어렵다면 품질의 차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

다. (하림 답변)

- 인센티브를 받는 농가가 더 많아 농가소득이 향상되었음.
- 사료는 균일하며, 병아리는 생물이므로 균일하도록 노력
- 현재 하림의 FCR이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림에서 공급하는 사료, 병아리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OECD국가 전체가 상대평가 제도를 시

행하고 있음.

- (하림) 육계사육비 정산은 출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출하한 농가의 계군 성적을 모집단으로 삼아
- 모집단 농가의 육성률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80% 농가의 평균 육성률을 산출하고,
- 모집단 농가의 사료요구율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80% 농가의 평균 사료요구율 및 평균 중량을 산출
- 평균 육성률, 사료요구율 및 평균 중량을 기준으로 평균 매입가를 결정함 다음, 각 출하 농가의 생산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농가별 사육비를 정산
- 생산지수는 평균 성적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인센티브 기준으로만 사용

* 생산지수: [육성률(%)×평균 중량(kg)]÷[일령(일)×사료요구율]×100